

사랑이 신화가 된 화가 『모딜리아니』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가난 속에서 죽었고, 죽어서 유명해진 모딜리아니는 예술가들 중에서 전설이 된 화가다. 그가 전설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 잔느 에뷔테른과의 사랑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소설, 희곡,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모딜리아니는 시대의 선두에 서고 싶다는 야망을 품고 이탈리아를 떠나 파리에 온다. 몽마르트르에서 모딜리아니는 가난하지만 열정을 다해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쳐보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져 있어 파리 화단은 모딜리아니의 예술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파리 화단은 피카소를 비롯해 입체주의, 야수파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두였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모딜리아니는 감정의 도피처로 술과 마약을 선택한다. 모딜리아니는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술과 마약을 사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모딜리아니의 생활은 엉망이었지만 그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인간에 대한 강한 애정이 모딜리아니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조형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술집을 전전하고 있던 모딜리아니는 미술학도였던 열아홉살의 잔느를 만난다. 사랑에 빠진 모딜리아니는 꺼져버린 삶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잔느는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백화점 중역이었던 잔느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잔느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와 모딜리아니와 동거에 들어간다. 모딜리아니는 잔느와 함께 살

면서 결핵이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녀를 지치지도 않고 그렸다. 특히 죽기 직전 2년 동안 잔느를 그린 초상화가 25점이 된다.

모딜리아니가 잔느와 함께 살면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 <앉아 있는 에뷔테른>다.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잔느는 첫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두 사람은 남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다. 모딜리아니는 남프랑스에서 머무는 1년 동안 열정적으로 그림에 매달렸다.

잔느는 팔로 배를 편안하게 감싸며 앉아 있다. 적갈색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지만 기울러진 고개 때문에 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어깨에 흘러 내리고 있다. 허리와 소매의 덧댄 사각형 모양의 천은 가풍만한 가슴의 선과 배를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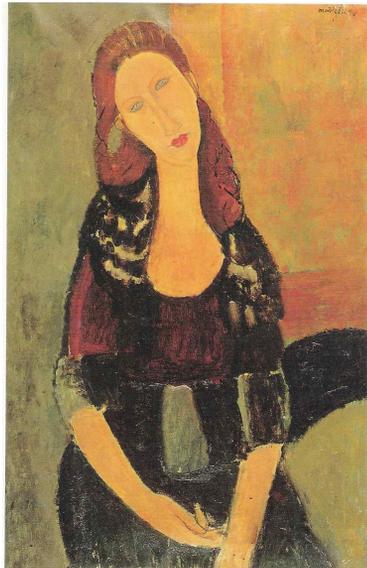
잔느가 부드럽게 배를 감싸고 있는 것은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잔느는 모딜리아니의 다른 작품속의 인물과 구별되고 있지만 아몬드 형의 얼굴, 백조를 연상시키는 긴 목, 부드럽게 경사진 어깨 등은 모딜리아니 초상화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정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잔느의 표정은 어머니로서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잔느와 동거 중에 모딜리아니는 친구인 시인 즈보로프스키의 도움으로 1917년 베르트 화랑에서 제1회 개인전이자 생전에 유일한 개인전을 연다. 모딜리아니가 드로잉과 누드 회화 작품을 30여점 출품하자 그의 누드 작품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동이 일어난다. 결국 모딜리아니의 개인 전시회는 취소되었다.

모딜리아니의 누드 작품이 <나부>다. 이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전통적인 누드 회화에서 약간 벗어나 현실의 여자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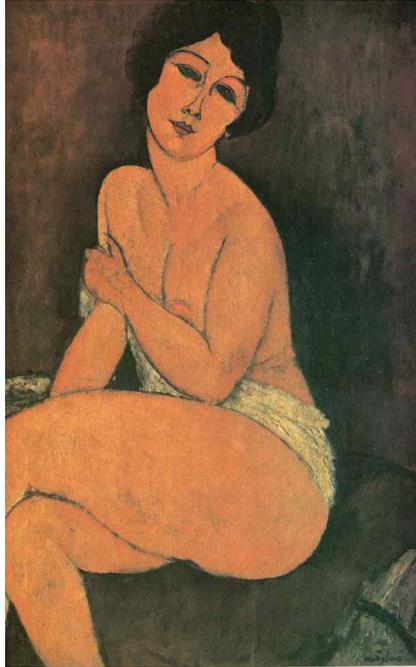
말년에 모딜리아니는 잔느와 함께 한 지 삼 년도 안 되지만 그 시기에 ‘생명의 예술’을 창조하게 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와 마약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



<앉아 있는 잔느 에뷔테른>-1918, 캔버스에 유채, 92*60, 개인소장

국 결핵성 수막염으로 죽는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잔느는 모딜리아니가 죽은 다음날 만삭의 몸으로 남편 곁으로 간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1884~1920>는 20세기 전위적인 예술세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펼쳤지만 생전에는 그의 예술세계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모딜리아니의 초상화와 누드화는 오늘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누드>-1917년,
캔버스에 유채, 100*65, 개인소장